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17(16),6,8 참조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주님,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주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제1독서 | 이사 53,10-11

화답송 | 시편 33(32),4-5,18-19,20과 22(◎ 22 참조)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2독서 | 히브 4,14-16

복음환호송 | 마르 10,4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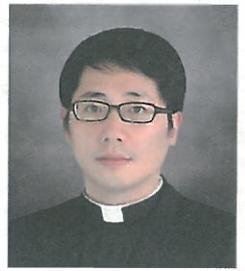
◎ 알렐루야.

○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

복음 | 마르 10,35-45<또는 10,42-45>

영성체송 | 시편 33(32),18-19 참조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신다.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공감(共感)

대학로를 걷다 보면 뮤지컬 배우와 길 위에서 대화를 나누려 줄 서 있는 팬들을 봅니다. 유명 연예인과 달리 뮤지컬 배우는 SNS나 공연 후 짧은 대화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비교적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소통·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지면 그만큼 관계성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공감이란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뜻합니다. 이번 주일 하느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는 '공감'입니다.

제1독서(이사 53,10-11)는 '고통받는 주님의 종'에 관한 예언입니다. 바빌론 타향에서 고통스럽게 포로 생활을 하던 하느님 백성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 사야서 속 주님의 종은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고통받으며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메시아로 묘사됩니다. 이 구약의 메시아는 고통받는 우리와 공감하는 메시아, 즉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한편 제2독서(히브 4,14-16)에서 '대사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히브 4,15)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대사제, 우리와 하느님을 화해시켜주시는 대사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통받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공감하며 사랑과 은총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오늘 복음(마르 10,35-45)은 스승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로 구성됩니다.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마르 10,37)라고 청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낙수 효과'를 기대했던 것일까요? 한편 옆에 있던 다른 열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불쾌해합니다. 그들 또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다른 이와 공감하지 못하는 제지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르 10,43-45)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감의 아이콘'이 되어 주십니다.

오랜 시간 계속되는 고통의 일상을 살다 보니 우리의 축 처진 어깨와 공허한 마음에 공감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무관심할 때에도, 우리와 공감해 주며 말 걸어오는 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과 어떻게 소통하며, 얼마만큼 공감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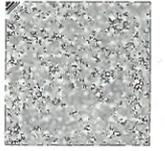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르 10,45)



자비로우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칠 줄 모르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십니다. 이천 년 전에 그러셨고 지금도 매일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분의 현존을 느끼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미사 후 제대 촛불이 꺼지면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듯합니다.

홍덕희 에베스 | 가톨릭사진가회



장일범 발렌티노 | 음악 평론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나 미사 참례를

아내가 기도를 위해 1년간 매일 새벽에 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토요일에는 새벽에 미사 참례를 함께 가거나 또는 매일 같이 저녁 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특히 명동성당 성모 동산을 찾아 간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자주 갖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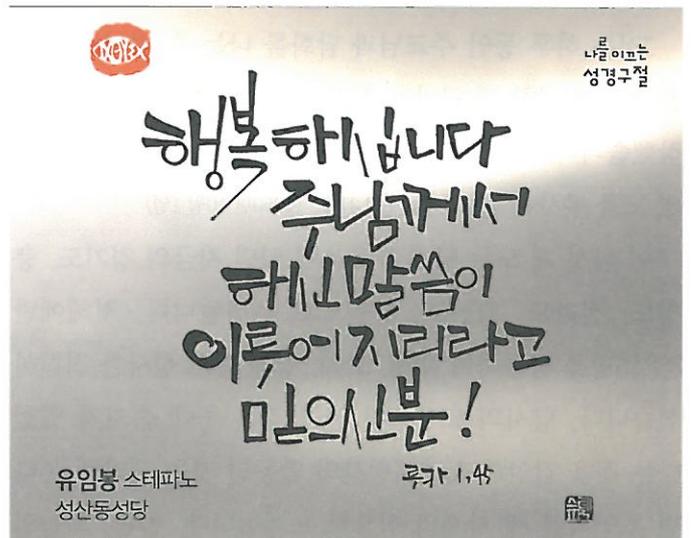
공연이나 강연을 하러 다른 도시나 지역에 갈 때에도 꼭 그곳의 성당을 찾아 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찾았던 성당 중 기억에 남는 곳으로 춘천 시향 아침 공연 때문에 갔던 소양로성당과 한국전쟁 당시 순교하신 성직자들의 묘역이 있는 죽림동성당, 마산 공연을 기회로 들렀던 중동성당, 제주도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많은 분들이 손꼽으며, 특히 성산일출봉과 정원이 조화로운 성산포성당이 떠오릅니다. 언어에 관심이 매우 많은 저로서는 각 지역 방언으로 진행되는 미사가 한편으로는 매우 즐겁기도 하여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해외 공연 취재를 갈 때에도 꼭 미사 참례를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도쿄에 갈 때에는 늘 도쿄 주교좌 세키구치성당의 한인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도쿄 한인 성당 성가대는 실력이 대단히 훌륭하고 성가를 아름답게 불러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하루는 미사가 끝난 뒤 시부야의 오페라 극장인 신국립극장에 가서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를 보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여주인공 엘리자베트의 숭고한 희생으로 탄호이저가 용서를 받아 교황님의 지팡이에서 파란 싹이 돌아나는 기적의 장면이 한인 성당 미사와 오버랩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음악 공연을 취재하러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오스트리아 빈의 성토마스성당입니다. 도시의 가장 유서 깊은 랜드마크이기도 한 성토마스성당에서 드리는 저녁 미사는 어두컴컴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에 촛불로만 빛을 밝히고 찬미하

는 모습이 매우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미사곡을 많이 남긴 모차르트가 혼배미사는 물론 그의 장례식까지 치렀던 성토마스성당에서의 미사는 음악을 하는 제겐 정말 특별한 감동이었습니다. 또 예술 감독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여름마다 자주 가는 그슈타트 페스티벌이 있는데, 스위스 산골 마을인 이곳에는 축제 중 리사이틀이 열리기도 하는 매우 작은 성당 한곳이 마을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평화의 인사를 할 때 “평화를 빕니다.” 하고 서로 손을 모으고 인사를 나누는 것만 경험했던 제가 서로 악수를 하며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을 처음 경험해 본 성당입니다. 물론 팬데믹 이전의 풍경이었지만요.

지구촌 어느 곳이 되었든 이렇게 가는 곳마다 지역의 특징에 따라 달라지는 성당의 전통을 미묘하게 느끼면서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고, 저는 아내와 다짐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매주 주일을 지키고 주일 미사에 참례하면서 기도를 올리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저의 꿈 중 하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성당을 다 찾아가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실천해야겠습니다.





성무 활동의 달인 최양업 토마스 신부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해이자 김대건 신부님이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해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은 해에 태어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모범을 본받아 두 분의 영성을 우리 삶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최양업 신부님을 흔히 ‘땀의 순교자’라고 부르는데, 그 땀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1849년 4월 15일에 사제 서품을 받으신 신부님은 7개월 동안 만주 지역에서 성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7개월 동안... 베르뇌 신부님의 명령에 따라 병자들을 방문하고 신자들에게 주일과 축일에는 짧은 강론을 하며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대축일에는 고해성사를 주며 성체를 배령하게 해주는 등 성무를 수행하였습니다.”(1850년 10월 1일 서한)

신부님은 말하자면 한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활동한 해외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 12월에 의주 변문을 통과하여 조선에 들어오셨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페레올 주교님을 뵈러 충청도로 가려 했는데, 다블뤼 신부님의 병이 위중하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병자성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후 그의 계속되는 성사의 여정, 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는 하루 동안 주교님과 담화를 나눈 후 잠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전라도에서부터 공소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저는 6개월 동안에 5개의 도를 무사히 돌아다녔습니다.”(1850년 10월 1일)

이 다섯 개 도는 당시 교우촌이 있던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로 추정됩니다. 첫해에만 3,815명을 방문하여 세례, 고해, 성체 등의 성사를 집전하셨습니다. 당시의 교우촌이 산골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6개월간의 활동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초인적인 새 사제의 힘으로 느껴집니다. 한편, 최양업

신부님의 사목 관할 구역 내에는 127개의 공소가 있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이 활동하던 1850년대의 공소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국 공소의 69% 이상을 유일한 한국 사제인 최양업 신부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성무 활동의 달인’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당시에도 중요한 성무 활동은 성사와 기도였는데, 교리 교육 역시 중요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성격으로 보면 교리도 충실하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1858년 베르뇌 주교님의 엄격한 규정(사본문답을 다 외우게 함)으로 400명의 예비신자 중에 세례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보고하면서 당시 교리문답을 외우는 장면을 편지에 남기십니다.

“제가 공소 방에 들어가 찰고를 받을 때... 놀랐습니다. 겨우 8~10세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이 교리문답 전체와 매우 긴 아침기도와 저녁기도의 경문을 청산유수로 암송하여 외우는 광경이 신기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파들이 우둔함을 무릅쓰고 열성을 부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능도 부족하고 기억력도 흐려서 경문을 하루 종일 배우면서도 한마디도 입에 담지 못하며 애를 쓰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었습니다.”(1858년 10월 3일 서한) 땀의 순교자 최양업 신부님, 그 ‘땀’은 성무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9년 10월 21일 한기근 바오로 신부(71세)
- 1943년 10월 23일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80세)
- 1950년 10월 19일 전덕표 안드레아 신부(29세)
- 1986년 10월 18일 김진하 요한 신부(62세)
- 2001년 10월 19일 김운상 베네딕토 신부(79세)
- 2011년 10월 19일 김자문 네레오 신부(63세)

‘백신 나눔 운동’ 참여 방법

참여방법 1 본당 사무실에 성금 접수(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참여방법 2 계좌입금: 우리은행 1005-398-100101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문의: 02)774-3488

교구청알림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1~2022년 상반기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 상담,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cpc@seoul.catholic.kr)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송제노 성미술 주얼리전: 1전시실
 윤경호 개인전: 2전시실
 가영시아 사진연구회 '빛이 있으라 하시니':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20일(수)~25일(월)

129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마음의 복된 분향 갖기 미사)

때, 곳: 10월1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420
 이번 주 기억할 분당: 평양교구 중강진 본당, 영흥 본당
 유튜브 통해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 (유튜브 앱 실행 →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중 '손경서 안드레아'
 때: 매달 셋째주(화) 10월19일 오전 11시(167회)
 곳: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B2 성 정하상 기념경당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참석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당일 선착순 마감)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021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전례음악 특강(대림성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에서는 팬데믹 시대에 대림·성탄시기를 성음악 안에서 풍요롭고 슬기롭게 보내실 수 있도록 <2021년 대림·성탄 시기 전례음악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전례음악 특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접수기간: 10월4일(월)~22일(금)
 모집인원: 선착순 50명 / 회비: 9만원(3강 일괄신청)
 접수방법: 이메일(casmmail@gmail.com) 접수 또는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사무국 방문 접수
 신청서는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홈페이지 다운로드
 본 특강은 서울대교구 성음악위원회가 주최하고,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가 주관합니다
 문의: 02)393-2213~5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사무국 / 홈페이지: <http://www.casm.site>



Synod 2021-2023

For a synodal Church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6차 정기총회

공동합의적 교회를 위하여
 - 친교, 참여, 사명 -

교구 개막 미사: 2021년 10월 17일 오후 12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가톨릭평화방송 TV와 유튜브를 통해 개막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노드를 위한 기도]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Adsumus)

-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 아멘.

인준단체 알림

모임

살레시오 수도회 성소상담 / 문의: 010-2042-8353
대상: 고3·일반 35세 이하 미혼 남성 / 심재현 신부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젊은이 가을 쉼 피정
때: 10월29일(금)~31일(일) 2박3일 / 회비: 6만원
곳: 라베르나 기도의 집(평창) / 대상: 35세 미만 여성
문의: 010-5313-0241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자연치유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 문의: 010-9916-5798 토마스모어 신부, 010-9363-7784 신글라라
때, 곳: 10월22일(금)~25일(월), 도미니코 수도회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성경 완독	11월5일(금)~13일(토)	곳: 도미니코
송년 피정	12월29일(수)~31일(금)	피정의집(주최, 황성)

청년들을 위한 힐링 개인 피정(상지 피정의 집)

1박2일	외산 곳으로 가서 쉼 쉬어라	문의:
2박3일	와서 빵을 먹어라	010-8191-0377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성지순례 피정	11월6일~9일, 11월14일~17일
자연순례 피정	11월20일~22일, 12월3일~5일, 12월11일~13일, 12월30일~2022년 1월2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5차	11월5일(금)~13일(토)	문의: 061)373-3001,
제96차	12월3일(금)~11일(토)	010-3540-9001
제97차	12월31일(금)~2022년 1월8일(토)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 지도: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0월23일(토)~24일(일), 12월11일(토)~12일(일)
3박4일	11월25일(목)~28일(일), 12월16일(목)~19일(일)
8박9일	11월9일(화)~17일(수), 12월26일(일)~2022년 1월3일(월)
40일	12월20일(월)~2022년 1월28일(금), 4월18일(월)~5월27일(금)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복음화학교 145기 1단계 온라인 유튜브 개강 3주차
때: 10월5일(화) 오전 10시 / 수강문의: 02)753-8765, 02)2096-0410·0411 새천년복음화학교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희랍어)
때: 2022년 1월~12월(수) 19시30분~21시30분(1년)
곳: Zoom 수업 / 회비: 3개월 30만원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2년 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12월6일(월) 14시
원서접수: 11월1일(월)~12일(금) 17시
문의: 02)2258-7076 대학원교학팀, 02)2258-7107 조교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바라지 학교 밖 청소년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위기)
교육과정: 검정고시교육, 대안교육(인문·목공·제과·제빵·바리스타·뷰티·도예·보컬 등), 문화활동, 진로탐색 및 상담, 동아리활동 / 문의: 02)2691-6544
곳: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주최, 양천구 신월3동)
자원교사 모집: 사진, 영상편집 및 제작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iWaxbxb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시 모집
회비: 16만원(8주 기준) / 문의(접수): 해당 과목 강사

오르간	(화) 16시30분~18시30분, 18시30분~20시30분	문의: 010-7795-6409
국악기·대금·소금·단소	(화, 수) 10시30분~12시30분, 15시~17시, 18시~20시	문의: 010-7930-2074
생활음악악기·팬플룻		
통기타·우쿨렐레·오카리나·아이리시타하울		
재즈피아노	(목) 19시~21시, (금) 10시~12시	문의: 010-7244-1312

모집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평신도 / 11월30일까지 접수
문의: 010-5399-3371, 010-9068-7346

미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때, 곳: 10월18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05-2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성서모임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월 넷째(주일) 10월24일 15시
곳: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중립동 약현성당 분당 설정 130주년 기념미사
2021년은 중립동 약현성당 분당 설정 13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약현성당에서는 분당설정 130주년 기념미사를 내외빈을 초대하여 다음과 같이 봉헌하고자 합니다 / 문의: 02)362-1891
때: 11월7일 11시 / 미사주례: 염수정 추기경과 사제단

인사

꼬메스영성상담소
치유와 성장이 있는 동행-심리상담, 영성상담, 전화상담(주1회) /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제8회 가톨릭영화제(가톨릭영화인협회)
때, 곳: 10월28일(목)~31일(일), 대한극장(전철 3·4호선 충무로역)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caff.kr) 참조
입장료 무료(자율기부제) / 문의: 0507-1424-0712

2021년 구립서초유스센터 청소년 '생명 지킴이 공모전'
내용: 청소년들의 생명존중 의식 고취를 위한 공모전 / 대상: 9세~19세 이하 청소년
10월29일(금)까지 접수 / 문의: 02)3486-0379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www.scy.or.kr) 공지사항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건강한 마음과 인생의	11월4일~12월16일 매주
사계절 생활 속의 심리학 (목) 오후 1시~3시(7주)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종합심리검사 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돕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10월26일(화) 14시, 서울대교구 양천(지)성당

직원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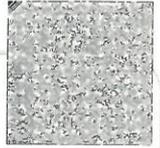
가평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형태 선택 가능, 기숙사 제공 / 031)589-0102
야간전담(적일제 야간), 주간전담근무, 3교대 근무

성수동성당 주간 방호원·주방 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분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합격자 개별 통보) / 채용시까지 사무실 방문·우편(우 0474,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길23 성수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kyeon@seoul.catholic.kr) 접수
제출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합니다

주간 방호원	시설관리, 청소, 미화 업무	각 1명
주방 근무자	사제관 주방	계약직

수도회 상호모임	때	곳	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umjesupassio@gmail.com)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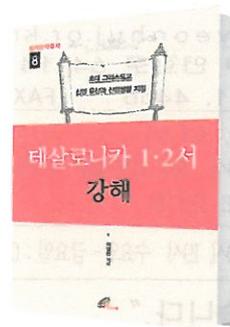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세계의 성모 발현
성지를 찾아서**

최하경 지음
분도출판사 | 400쪽 | 2만5천원
문의: 02)2266-3605

교황청에서 인정한 16곳의 성모 발현 성지를 직접 순례하고 만든 안내서이다. 멕시코 과달루페, 프랑스 루르드, 포르투갈 파티마처럼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성지뿐 아니라, 리투아니아 실루바, 체코 필리포프, 아일랜드 노크처럼 조금은 덜 알려진 성지까지 상세하게 소개한다.



신간
**테살로니카
1, 2서 강해**

이용현 지음
바오로딸 | 296쪽 | 1만8천원
문의: 02)944-0944

신자들이 쉽게 바오로 서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문적 작업에 계속 전념해 오고 있는 저자의 성서연학총서 여덟 번째 책이다. 바오로 서간을 처음 접하는 초심자들도 쉽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을 알아듣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신간
**노년을 위한
십자가의 길**

이은주 지음 | 류상에 그림
성바오로 | 52쪽 | 5천원
문의: 02)945-2972

이 책은 노년기를 맞은 모든 이를 위한 '십자가의 길' 기도서이다. 각 처마다 묵상 그림과 말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걸으신 고통의 길을 함께 걸으며,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간
**간추린
가톨릭 교리 문답**

페루 성바오로수도회 지음
성바오로 | 176쪽 | 7천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펼쳐보는 데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신자들은 물론, 가톨릭 교리를 알고 싶어 하는 타종교 신자나 비신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답 형식으로 꾸몄다. 또한 핵심만을 다룸으로써 교리서 전체 중요 내용을 담았다.



신간
**성경 인물에게 배우는
나이 들의 영성**

서명옥 지음
바오로딸 | 232쪽 | 1만3천원
문의: 02)944-0944

우리는 젊고 멋진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세월의 나이테를 지울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러기에 이 책은 늙음을 피하지 않고 기쁘게 맞이하는 지혜를 이야기한다. "어떻게 하면 참 나의 얼굴을 가꾸고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실마리를 성경에 소개된 인물들의 삶에서 찾고 풀어간다.



신간
**성경 본문 줌인
구세사 편 2**

김혜윤 지음
생활성서사 | 336쪽 | 1만7천원
문의: 02)945-5987

성경의 내용 중에서 구세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면을 뽑아 성경 원어로 읽고 원래의 의미를 해석하며 오늘날의 의미를 찾는다. 구세사적 의미가 담긴 구약 성경의 본문을 더 깊게 읽기 위해, 성경 원어를 보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여 말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2199 (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형제, 자매님들을 찾습니다."

+ 찬미 예수님
지난 1년여 동안 연희동 성당은 구역장님들과 반장님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성당 구역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성당구역을 정비하면서 알게된 여러 사항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묵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인 10월 한 달동안 지금까지 여러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가족, 이웃 등) 다시금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월 이후, 지난 3년간 연희동성당에서 아무런 활동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성사생활, 봉사활동, 교무금내역, 기타 등등..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주미상으로 분류, 입력 될 예정이오니 교우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과 노력으로 쉬는 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 또는 구역장(반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신자 입교식 : 10월 31일(주일) 11시 미사

교리반	교리 시작 날짜	장소
수요반	11월 3일(수) 오후 8시~	교육관
주일반	11월 7일(주일) 오전 9시~	304호

- ※ 교리재교육이 필요한 교우들도 함께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1월 28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10월 19일 (화) 오전 10시

◎ 병자영성체 : 10월 29일(금) 오전 10시 미사 후

◎ 위령의 날 미사

11월 2일(화)	오전 10시	(합동위령미사)
	오후 7시	(합동위령미사)

* 11월 2일은 위령의 날을 맞아 죽은 이들을 위한 합동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미사 후에 연도가 있습니다.

◎ 유아세례 : 11월 7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청년 성서모임 '새암성서' 가을학기 봉사자 모집

- 청년 성서모임 '새암성서'에서 함께 성경그림 나눔에 도움 줄 청년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10월 상시
- 개강 : 10월 중 개강
- 과목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 문의 : 대표봉사자 정종현 사도요한 (010-3223-5747)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8월 10일(화)~11월 17일(수)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문의 : 중고등부자모회장 (010-7752-4976)
※ 신청은 문자로 연락바랍니다.

◎ 오늘은 리모델링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1. 10. 10)

총세대	책정 세대	미책정 세대	2020년 책정율	2020년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204	843	1,361	45.2%	42.0%	38.2	36.7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리모델링 기금 (10월 4일~10일)

누 계 918,074,861원

◎ 감사헌금 (10월 4일~10일)

박숙자 삼십만원	임정환 일십만원
김광호 삼십만원	허원욱 오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김재균 오만원
성주혜 오만원	최현우 오만원
허인희 일십만원	송기중 이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8주일)

교무금 8,999,000원
주일헌금 3,134,000원
리모델링 2차헌금 1,628,000원